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평창은 남북·북미 대화와 수교(修交)로 이어져야

지난 25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폐막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목표로 했으나,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안에 든 아시아 국가는 한국 7위, 일본은 금 4개, 은 5개, 동 4개로 종합 11위, 중국은 금 1개, 은 6개, 동 2개로 종합 16위였다. 상위권은 모두 유럽과 아메리카대륙 국가들이다. 승리보다 참가에 의미가 있다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전 세계인에게 유감없이 보여준 아름다운 지구촌 축제였다.

재수(再修), 삼수, 사수 끝에 지난 평창겨울올림픽은 조지워싱턴 교제,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막판과 긴장 조성, 북한팀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방남(訪南), 한반도기 사용과 남북 공동입장, 평양올림픽이나 북한 체제 선전선동장이나 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장애도 많았다. 이제 이런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9개국 57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평창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제 '평창 이후'가 한반도의 명운(命運)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4월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면서 실시하면, 북한은 도발로 규정하고 또 다시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고 하면서 실행할 가능성이 많다. 서로가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겨대면서 실행하면,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 이전'보다 더 험악하고 대결과 긴장은 더 위험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문제와 남북문제를 공부하고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평창겨울올림픽을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구현시킨 성공적인 세계인의 축제로 만든 일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당 정권이다. 남북 간에 직통 전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단절과 대결, 긴장 조성과 전쟁 위기만이 판치는 보수 정권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 선정부터 탁월했다 수천 년 고난과 시련의 눈물겨운 역사를 헤치고 이겨낸 우리 민족의 슬기다. 외세에 의해서 세계 유일의 73년 분단된 국가, 분단된 민족도 모자라서 지금도 외세가 간섭하고 남북(?)갈등에 날이 새고 있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거나 누가 내려

온다고 하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별떼처럼 달려드는데, 북한이 아니라도 국내 문제에도 '사사건건 남남갈등'하고 있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철 지난 증복장사하며 색깔론 환자가 된 보수 정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려오니, 물 만난 고기처럼 거리로 나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거짓 미소로 위장평화 전략전술을 한다고 하는 데, 한·미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핵을 빼앗아려고 '비핵화'만 지나 깨나 주문처럼 외치면서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위장평화가 아닌가.

셋째, 한·미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 북한 보다 경제력이 한국은 약 40배, 미국은 약 600배이고, 핵무기는 미국이 약 4000배이다. 핵무기가 러시아 약 1천2백개, 프랑스 3백개, 인도 약 1백개, 이스라엘 약 80개, 북한 약 60개이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핵무기는 양적(量的)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죽고 자기도 죽는 핵무기, 또는 상대방을 제대로 죽이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전멸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상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

고 살살 몰아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肉聲)이 자꾸만 생각난다.

넷째,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동맹국인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 핵병 중공(中共)과는 1992년 수교했다. 그 때 노태우 정부는 6·25참전에 대하여 사과 받고 남한 방문을 허락하고 수교했는지, 보수정당에게 묻고 싶다. 한·미·일에 묻는다. 한국의 우방 일본과 핵병 미국은 왜 북한과 수교를 거부하고 고립과 봉쇄, 압박과 제재로 27년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비핵화 하지 않고 수교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력과 군사력에 비교도 안되는 약소국이 비교도 안되는 핵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출구도 막고 몰아세우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막강한 군수산업의 유지 번영과 경쟁국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한국과 북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여러 방면의 활발한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과 남북·북미·북일 평화화조약 체결되면 핵과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핵' 있는 평화 가 가능하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의 집의응답에서 평창겨울올림픽과 남북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던 이날 연 국무총리와 조병균 통일부장관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적이 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의 나의 의견을 털어 놓았다.

社說

광융합기술 정부지원 절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光) 융합기술에 대해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 광융합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광 기술개발의 기반을 지원하고 기술표준화와 광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광 융합기술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광 기술은 IoT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돼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기술에 대해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장병완 의원은 "광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나 투자, 산업발전을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산지중기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질없는 광융합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광주광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법이 국내 광 융합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乃服衣裳

이예 내
옷 북
의 의
차마 상

乃服衣裳

▷ 뜻: 이예 의복(衣服)을 입게 하니 황제(黃帝)가 의관(衣冠)을 지어 등분(等分)을 분별(分別)하고 위의(威儀)를 엄속(嚴肅)케 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방법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잘 익혀두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폐닉현상 등으로 인해 평상시 판단력의 일부분만 사용된다. 이로 인해 이성을 잃고 당황하게 되는데, 이를

때일수록 침착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위에 비치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 초기소화 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화 활동에만 집중하다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화재가 확대되어 진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불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중 6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사람은 일산화탄소 1%를 포함한 공기를 약 2분정도 호흡하

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이밖에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는 절대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위기대처 능력과 화재시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는 일이 내 이웃과 소중한 내 가족들을 큰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성근 /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인론진흥재단